내가 알아서는 안돼

2월 4일 주일 예배

주제 말씀 | 시편 119:169-176 | 사 40:1-11 | 벧전 2:21-25 | 요 10:1-18

주일의 소리 3분 묵상

가져오

"For the expression of the poet, for the righting of the meekness, now will I arise, saith the LORD; I will set in safety [from] [him] that puffeth at him." — Psalm 12:5

"가난하게 당하는 자들의 억울함 때문에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억압받는 이들을 건져 주리라 하셨으니 시편 12:5

"The forbearance that God has exercised toward the wicked, embolden them in transgression, but God will arise and deliver the oppressed. He will set them in safety by taking [them] to Himself. He will be a refuge for the poor. Persecutors, He will breathe on as in the valley of Gilgeam, their breath will be as a whirlwind, and they will be as the dust of the threshing floor. The wicked will be as the dust, which the wind, the act of punishment, is a straight, as," This, saith the Lord Christ, I have commanded, I will arise, I will arise, I will arise,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Ezekiel 33:11 "Turn, turn, turn, why will you die, house of Israel?" "Turn, turn, turn, why will you die, house of Israel?" Repentance and transgression and sin." "Le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Le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Le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confusion, that the name of Jehovah might be glorified." PK 200.1

"여호사밧은 자신 있게 주님께 "우리의 눈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백성들에게 자는 사대에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원한다 말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주 개입하셨던 분을 신뢰하라고 가르쳤고, 이제 왕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혼자 서 있지 않고 "온 유다가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13절. 그들은 연합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을 받으시도록 찍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PK 200.1

2월 8일 목요일

주님의 심판과 성소

Read Psalm 96:6-10; Psalm 99:1-4; and Psalm 132:7-9, 13-18.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rd's sanctuary? What does the sanctuary help us to understand how God will deal with evil?

시편 96:6-10, 99:1-4, 132:7-9, 13-18을 읽어 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성소는 어디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 지 이해하는 데 성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Shall we accept the precious words of assurance to be found in the Word of God? Shall we believe the promises of God, and magnify His holy name? We should continually honor Him and praise and with thanksgiving. I desire especially to call the attention of our people to the Scriptures that bid us magnify the Lord God of Israel. Shall we not cease all repining, and let the praise of God flow forth from our lips?" 21LtMs, Ms 91, 1906, par. 5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확신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는 계속 경의와 감사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성경 말씀에 우리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핵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LtMs, Ms 91, 1906, par. 5

"In the sanctuary of the wilderness tabernacle and of the temple that were the earthly symbols of God's dwelling place, one apartment was sacred to His presence. The veil brought with them into the sanctuary of its entrance was not to be lifted by any hand save one. To lift that veil, and intrude unbidden into the sacred mystery of the most holy place, was death. For above the mercy seat dwelt the glory of the Holiest—glory upon which no man might look and live. On the one day of the year appointed for ministry in the most holy place, the high priest with trembling entered God's presence, while clouds of incense veiled the glory from his sight. Throughout the courts of the temple every sound was hushed. No priests ministered at the altars. The host of worshipers, bowed in silent awe, offered their petitions for God's mercy." MH 437.1

"하나님의 거처의 지상적 상징이었던 광야 성막과 성전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소 한 칸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가져온 휘장은 어떤 손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의 신성한 신비를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아무도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 년 중 지성소에서 봉사하기로 정해진 어느 날, 대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섰고, 향 구름이 그의 시야에서 영광을 가렸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모든 소리가 정적해졌습니다. 제단에서는 제사장이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숭배자들이 조용한 경외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MH 437.1

"In bringing to the temple the sacred ark containing the two tables of stone on which were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the precepts of the Decalogue, Solomon had followed the example of his father David. Every six paces he sacrificed. With singing and with music and with great ceremony, the priests brought in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unto his place, to the oracle of the house, into the most holy place." Verse 7. As they came out of the inner sanctuary, they took the positions assigned them. The singers—Levites arrayed in white linen, having cymbals and psalteries and harps—stood at the east end of the altar, and with them a hundred and twenty priests sounding with trumpets. See Verse 12." PK 38.2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의 교훈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는 성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는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노래와 음악과 상대한 의식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분의 자리, 즉 성소의 신탁으로, 지성소로 가져왔습니다." 7절. 제사장들은 성소 안쪽에서 나오면서 자리에 배치된 대로 서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즉 흰 베옷을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든 레위 사람들이 제단 동쪽 끝에 섰고,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서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라." PK 38.2

"Solomon then knelt upon the platform, and in the hearing of all the people offered the dedicatory prayer. Lifting his hands toward heaven, while the congregation were bowed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the king pleaded: 'Lord God of Israel, there is no God like Thee in the heaven, nor in the earth; which keepest covenant, and showest mercy unto Thy servants, that walk before Thee with all their heart.'" PK 40.1

"솔로몬은 단 위에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중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동안 왕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니, 주 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셔'라고 간청했습니다." PK 40.1

"Through centuries of persecution, conflict, and darkness, God has sustained His church. Not one cloud has fallen upon it that He has not prepared for; not one opposing force has risen to counterwork His work, that He has not foreseen. All has taken place as He predicted. He has not left His church forsaken, but has traced in prophetic declarations what would occur, and that which His Spirit inspired the prophets to foretell has been brought about. All His purposes will be fulfilled. His law is linked with His throne, and no power of evil can destroy it. Truth is inspired and guarded by God; and it will triumph over all opposition." FLB 281.2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갈등,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구름은 하나도 내리지 않았고, 그분께서 예견하지 않으신 반대 세력도 나타나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언자적 선언을 통해 일어날 일을 추적해 오셨으며, 그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예언하도록 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의 법은 그분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감과 보호를 받으며 모든 반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FLB 281.2

2월 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During ages of spiritual darkness, the church of God has been as a city set on a hill. From age to age,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the pure doctrines of heaven have been unfolding within its borders.... It is the theater of His grace, in which He delights to reveal His power to transform hearts. FLB 281.3

"영적 암흑의 시대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았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하늘의 순수한 교리가 그 경계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극장입니다. FLB 281.3

"The church is God's fortress, His city of refuge, which He holds in a revolted world. Any betrayal of the church is treachery to Him who has bought mankind with the blood of His only-begotten Son. From the beginning, faithful souls have constituted the church on earth. In every age the Lord has had His watchmen, who have borne a faithful testimony to the generation in which they lived. These sentinels gave the message of warning; and when they were called to lay off their armor, others took up the work. God brought these witnesses into covenant relation with Himself, uniting the church on earth with the church in heaven. He has sent forth His angels to minister to His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have not been able to prevail against His people. FLB 281.4

"God loves His children with infinite love. To Him the dearest object on earth is His church." FLB 281.5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이며, 그분이 반란을 일으킨 세상에서 지키고 계신 피난처입니다. 교회를 배신하는 것은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그분에 대한 배신입니다. 태초부터 충실한 영혼들이 지상의 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모든 시대에 주님께서는 파수꾼들을 두셨고, 이들은 그들이 살던 세대에 충실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이 갑옷을 벗으라는 부름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을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셔서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지옥의 문은 그분의 백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FLB 281.4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은 그분의 교회입니다." FLB 281.5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연배드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